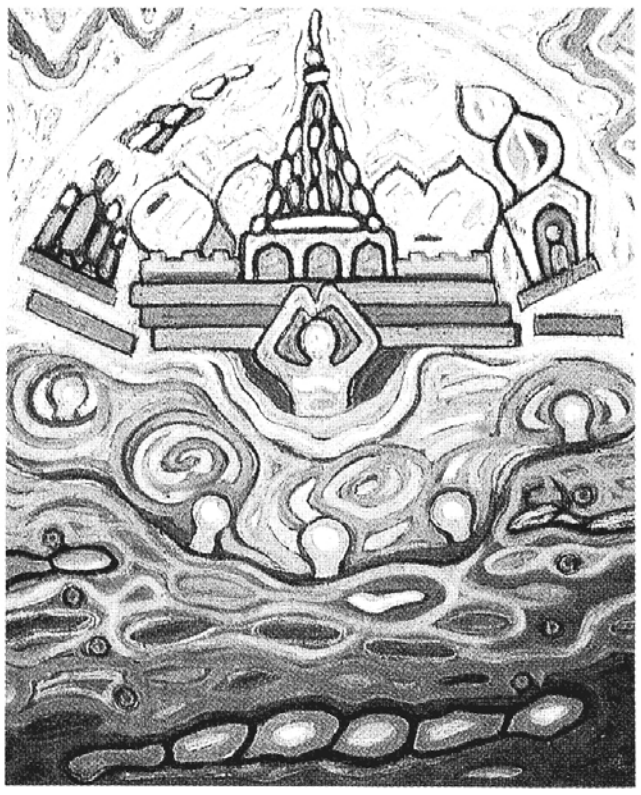
주체 부정…기본 가르침 '無我'

보르헤스의 ㉛ 불교강의

불교란 무엇인가 ④



◇윤회의 과정에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므로 성실전력하여 성불에 이르도록 노력해야 한다. 사진은 석도열스님의 회화 '윤회의 강'.

'나는 생각한다'→잘못 '생각이 일어난다'→타당
순간에 충실·부정 훈련 거듭하면 깨달음 만나

인간에게 허용된 여섯가지의 운명(六道輪廻) 중에서, 다시 얻기 가장 어려운 길은 인간이라는 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소중한 기회를 최대한 살려야 합니다. 붓다는 비유를 빌어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거북이 한 마리가 바다속에 살았는데, 육백년에 한번 수면으로 올라옵니다. 그 거북의 머리가 넓은 망망대하에 떠 있던 나무팔찌에 끼일 확률이 바로 인간 몸을 받고 태어날 수 있는 확률이라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기회에 우리는 성심전력하여 성불(成佛)을 이루고 열반에 들도록 노력하라는 것이 붓다의 가르침입니다.

신(神)의 개념을 부정하고, 우주를 창조한 인격신이란 존재치 않는다면, 삶의 의미와 고통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이때 떠오르는 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선(禪)이라는 개념입니다. 이 용어는 우리에게 생소한 것이기에, 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을 빌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쇼펜하우어의 〈의지(意志)〉를 생각해 봅시다. 쇼펜하우어는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Die Welt als Wille und Vorstellung)〉를 인식하였습니다. 하나의 의지가 있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육화(肉化)하고 또 세계라는 표상을 만들었습니다. 이 의지는 철학자마다 이름을 달리하여 표현됩니다. 베르그송은 '생의 충동(Elan vital)'이라고 불렀고, 버나드 쇼는 '생명력(the life force)'이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 사이에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베르그송과 쇼는 '생의 충동'이 인간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꿈꾸고 창조해 나가기에 힘써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와 붓다는 세계를 하나의 꿈(幻)이라고 보고, 그 꿈에서 깨어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랜 수련에 의하여 그러한 각성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우리는 고통을 안고 태어났습니다. 삶이란 어쩔 수 없이 불행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산다는 것은 태어나고(生), 늙어가며(老), 병들기도 하다가(病), 이윽고 죽습니다(死).

인생에는 이외에도 여러 종류의 괴로움이 있는데, 그 중에는 붓다의 말씀 중 가장 정(情)적인 표현인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지 못하는 괴로움도 있습니다.

우리들은 감정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합니다. 자살은 무모한 행위입니다. 그것이 감정적인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꿈속의 세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리는, 세계가 하나의 환영(幻影)이며 따라서 생이란 꿈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깊이 생각해서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때문에 불교에서는 정신수련과 명상을 중시합니다. 불교사원에서 하는 수련법 중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수련자는 매 순간을 충만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는 스스로를 주인공이라 부르고, 지금은 정오다, 지금 나는 뜰을 지나고 있다, 나는 지금 스승을 만나러 가고 있다고 되뇌어야 합니다. 동시에 그는 주인공과 정오, 뜰과 스승 그리고 그런 생각조차도 실재하지 않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무아(無我)는 불교의 기본적인 가르침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살면서 가지는 가장 큰 착각이 '나'라는 의식입니다. 이 점은 철학자 흄과 소펜하우어 그리고 아르헨티나의 소설가 마세도니오 페르난데스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주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련의 정신적 상태만이 있습니다. 만일 내가 '나는 생각한다'고 말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아(常我)와 그것의 작용인 생각을 하나의 주체로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대신 흄이 제시한 것처럼, '나는 생각한다'가 아니라 '생각이 일어난다'고 표현하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우리는 '누군가 비를 오게 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비가 온다'이지요. 주체가 끼어들지 않습니다. 날씨가 덥다고 하지 누군가가 날씨를 덥게 한다가 아닙니다. 이처럼 '내가 생각한다'가 아니라 '생각이 난다'이며, '누군가가 나를 아프게 한다'가 아니라 그냥 '나는 아프다'입니다. 이처럼 주체라는 고정관념으로부터 탈피해야 합니다.

불교사원에서 초심자들은 매우 어려운 수행을 거쳐야 합니다. 그들이 사원을 떠나겠다면 붙잡지 않습니다. 어떤 곳에선 수행자들의 명단을 만들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내 비서인 마리아고다마(일본계 혼혈로 나중에 보르헤스의 부인이 됨)가 한 말입니다. 초심자가 처음 절에 들어오면 매우 힘든 일을 해야 합니다. 밥짓고, 청소하고, 마당을 쓰는 일이 그를 기다리고 있어서 낮잠잘 틈도 없습니다. 이렇게 그는 한 순간도 방심하지 않고 정신을 집중해야 합니다. 그의 정신이 다다라야 하는 종착역은 이 세상이 실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는 부정의 훈련을 쌓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선불교와 달마대사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보리달마는 6세기경 인도에서 중국으로 건너갔습니다. 달마대사를 맞이한 중국의 황제는, 불교를 보호하고 후원하는 자신의 치적을 자랑하기 위하여 사원과 수행승의 숫자를 쭉 열거하였습니다. 그 말을 듣고 달마대사가 말하기를, "그 모든 것은 환영(幻影)의 세계에 속합니다. 사원과 승려들은 모두 무상(無常)한 것이고, 이 점에서 폐하나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고 하였습니다. 그는 어전에서 물러나 장시간의 면벽참선에 들어갔습니다.

달마대사를 시조로 하는 선불교는 중국에서 한국을 거쳐 일본으로 들어갔습니다. 선불교는 깨달음에 이르는 독특한 수행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선 수년간의 수련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깨달음은 갑자기 옵니다. 그것은 결코 삼단논법이나 연역법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즉각적으로 진리를 자득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논리를 넘어서는 갑작스런 깨침(일본어로는 흔히 사토리라 합니다) 입니다.

편역 : 김 홍 근
〈외대강사·문학평론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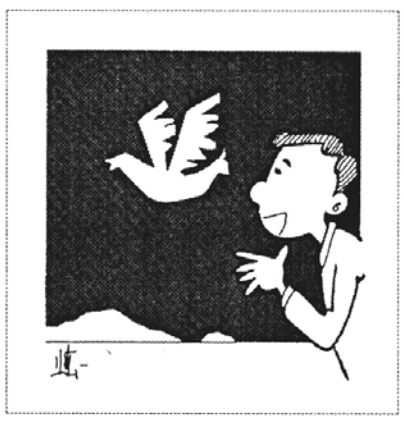
나의 수행일기

윤 경 원 〈코레스코 대표〉 〈上〉

늘 단주 매만지며 下心·正道 다짐
어머님께 물려받은 불심…사업은 봉사의 방편

나는 늘 주머니에 단주를 넣고 다닌다. 손버릇처럼 매만지는 나의 단주는 나를 바른길로 이끌고 이기심을 버리게 하는 안내자 역할을 한다. 하심(下心)과 정도(正道)는 부처님을 믿는 사업가로서 내게 가장 중요한 계율이고 단주를 굴리며 그 계율에 내가 얼마나 충실하게 살고 있는지를 생각하는 것이다.

나의 불심은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다. 동네 사람들에게 '보살'이란 말이 생소해서 그렇게 불리진 않았지만 어머니는 정말 큰 보살이셨다. 지나가는 행상들이 밤에 들어와 잠을 청하면 거절을 하지 않으셨고 거지들에게도 늘 넉넉하셨다. 시장에 가셔서는 큰 가게 보다는 좌판을 벌여놓은 사람들의 물건을 팔아주셨다. 늘 남에게 지극하셨던 어머니의 마음자리야말로 불자로서 추구해야할 삶의 자세라는 것을 내 나이가 들어 갈수록 절실히 느끼게 된다. 학교 다닐때보다 사업을 하면서 나도 그런 마음자리를 가지려고 노력한다. 주머니 속의 단주가 그런 나의 노력을 독려하고 이끌고 있는 것이다.



가족호텔업을 처음시작한 것은 82년이었고 첫 호텔은 속초의 설악콘도였다. 설악콘도를 건설하는 동안 나는 낙산사를 수백번 찾아 갔었다. 사업의 첫단계이기도 했지만 공사란 것이 생각대로 욕심대로 되는 것은 아니어서 가슴 답답한 일이 생기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럴때마다 찾아간 곳이 낙산사였던 것이다. 동해의 푸른 바람을 온몸으로 맞으며 늘 자비로운 미소를 머금고 계시는 해수관음보살님 앞에서, 홍련암의 그 아늑한 법당에서 나는 기도를 했다. 관세음보살님이 계셔서 뭇중생의 절절한 소망을 들어 주신다는 믿음으로 나는 낙산사를 찾았고 기도를 했던 것이다. 차질없이 공사가 잘 되길 빌었고 내가 나만을 위해 사업을 하는게 아니라 보다 많은 사람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으로 사업을 하게 해 달라고 빌었다. 그리고 평생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불자로서 바른길을 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갖추게 해 달라고 빌었다.

물론 불보살님의 가피로 첫 사업장은 잘 지어졌고 운영도 잘되고 있다. 나는 속초에 출장을 갈때면 당연히 낙산사를 찾아간다. 갈때마다 새로운 모습으로 나를 반기시는 해수관음보살님을 만나는 마음과 어머니를 만나는 마음이 어찌 다르다고 할 수 있을까. 가장 절실할때 어머니를 찾는 마음으로 찾는 관세음보살님은 언제나 어머니같은 푸근함과 자애로움으로 나를 안심시키는 것이다.

몇년전 낙산사를 찾았을때는 보타전 신축불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었다. 나는 기쁘게 불사금을 시주했고 신축되고 있는 보타전 건물에 경건하게 절을 하기도 했다. 다 지어지지도 않은 건물에 절을하는 것은 낙산사에 관음보살님이 계신다는 나의 확신에서 비롯된 것이었는데 잠시후 나는 다시 그 믿음을 현실로 체험할 수 있었다. '관음조'를 본 것이다. 홍련암 쪽에서 나는 푸른 바다를 보고 있었는데 흑청색의 새 한마리가 날아가는 걸 본 것이다. 바닷가니까 새들이 날아다닐 수도 있겠지만 잠시 내 시야로 들어왔던 그 새는 왠지 평범한 새가 아닌 것 같았다. 비둘기 보다는 좀 작은 그 새가 무슨 새냐고 절에 있는 사람에게 물었더니 관음조라고 말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나는 어떤 전율을 느꼈다. 그 사람은 관음조는 아무에게나 보이는 새가 아니라고 했다. 나에게 아주 좋은 일이라고 부러운 목소리로 축하까지 해 주는 것이었다.

'아, 관세음보살님께서 내게 새로운 희망을 주시는 것이구나'라는 생각에 나는 뛸듯이 즐거웠다. 속초의 설악콘도도 그렇지만 경주나 강화 치악산 가평등 사업장마다 주변에 명찰이 있어 나는 든든하다. 부처님 가까운 곳에 사업장이 있다는 것 자체가 내게 하나의 힘인 것이다. 그렇게 사업장을 개척해 나가며 나는 불보살님께 무수히 기도를 했고 그럴때마다 가피를 수없이 경험했다. 그중 사이판 사업장을 건설할 때의 일은 두고두고 잊혀지지 않는다.

신속하고 꼼꼼한 새로운 차원의 DM서비스 · (주)아림DM

전자동 기계화 시스템의 새로운 DM서비스-대량의 우편물을 빠르고 정확하게!

시간과 비용절감을 원하십니까? - 자동화시스템으로 해결합니다.
아림은 제작, 포장 발송의 전과정을 자동화시스템으로 구축, DM발송에 드는 시간과 기본 비용을 절감하였습니다. 1시간에 15,000부를 소화할 수 있는 우편물 처리능력을 가진 아림의 자동화시스템은 우편물 포장 중앙 관리장치로 입고부터 생산·발송·사후처리까지 작업의 전과정을 일괄적으로 관리 통제하여 대량의 우편물을 정확하고 빠른 속도로 처리합니다.
아림은 전문화된 DM서비스로 보내는 이의 우편물 한장 한장을 소중히 생각합니다.

효과적인 홍보를 원하십니까? - 기획, 발송까지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아림은 전문홍보기획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 각종 DM, 법회지, 안내문의 제작까지 책임집니다. 인쇄방법, 지질, 색깔 모양 등 모두가 자유입니다. 기획에서 발송까지를 온라인시스템으로 운영, 체계적인 홍보전략을 실현합니다.
목적에 맞는 효과적이고 생생한 DM의 효과를 경험하십시오.

성실한 서비스를 원하십니까? - 아림은 철저한 프로페셔널 정신으로 업무에 임합니다.
성실한 서비스를 실현합니다.
아림은 기계화된 포장시스템과 넓은 보관공간, 신속한 운반시스템으로 고객의 우편물을 훼손없이 안전하게 전달하고 제공된 자료를 철저히 관리합니다. 아림에 맡겨진 우편물들은 사소한 과정에도 소홀함없이 전과정이 꼼꼼하게 관리됩니다.

취급 우편물-Packaging, 신문 · 잡지 · 카탈로그 · 서적 · 카드 등 3종 우편물
포장방식-종이포장 · 비닐포장 · 수축포장 · 신문포장 등 다양한 방식의 DM서비스로 대량의 모든 우편물 취급

(주) 아림DM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900-29 Tel 803-2445 · Fax 807-5784 · 정기간행물 및 각종 우편물 발송대행 · 자료입력 및 데이타 관리 · DM 프로그램 개발 · 법회보 발송